

'SM 갈등' 동방신기, 中 콘서트 성황 '건재 과시'

양승준 · 입력 2009. 10. 3. 12:49 · 수정 2009. 10. 3. 23:20



▲ 그룹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그룹 동방신기가 중국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등 일부 멤버가 소속사와 전속계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는 2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축구장에서 열린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현지 언론인 동방조간은 3일 '동방신기 일부 멤버와 SM간 갈등이 있었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멤버들은 열심히 공연을 치렀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 관객들은 동방신기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멤버들을 응원했다. '민어요'란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 속 동방신기의 존속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



▲ 그룹 동방신기

오랜만에 다섯명이 함께 모인 동방신기는 이날 '롱넘버', '헤이!' 등 히트곡들과 멤버 개인 무대로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동방신기 상하이 콘서트에는 팬들이 많이 몰려 공연장 일대가 교통 혼잡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영웅재중, 믹키유천을 비롯 시아준수 등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7월31일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갈등을 빚고 있다.

▶ **관련기사** ◀

[☞'오리콘 1위' 재중·유천, "첫 듀엣, 신선하고 행복한 경험"](#)

[☞'SM 갈등' 재중·유천, 日서 듀엣 활동 '다정'](#)

[☞'소송' 동방3인 vs SM, 서류 추가제출...법원 결정은?](#)

[☞가수 이은민, 알고보니 '동방신기 소송' 로펌 변호사](#)

▶ HOT스타 연예화보 - 모바일 SPN1008 < 1008+nate/show/ez-i > <저작권자©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